

## 주요 내용

### 1.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 비교]

교회출석자 4명 중 1명, 다른 종교에도 구원있다고 생각해!

###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인의 세대 갈등

2) 2022년 학교 폭력 실태



# 교회출석자 4명 중 1명, 다른 종교에도 구원있다고 생각해!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다양한 영역별 주요 이슈에 대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간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이들 두 집단이 공감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에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2022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한국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정치 성향과 평등 의식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동성혼과 낙태,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개신교인이 좀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종교적인 인식도 함께 조사했는데, 교회 출석자의 25%, 즉 4명 중 1명 정도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넘버즈 184호〉는 한국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과 어떤 분야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편으로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리포트를 통해 한국사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향후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인식 조사

###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개신교인 조사	비개신교인 조사
•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전국 만 19세 이상 비개신교인 남녀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표본 수	총 1,000명(유효 표본)	총 1,000명(유효 표본)
• 표본 추출 방법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지역/성/연령별 비개신교인 비례할당
• 표본 오차	무작위 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pm 3.1\%p$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2022년 11월 15일 ~ 11월 24일 (10일간)	
• 조사 의뢰 기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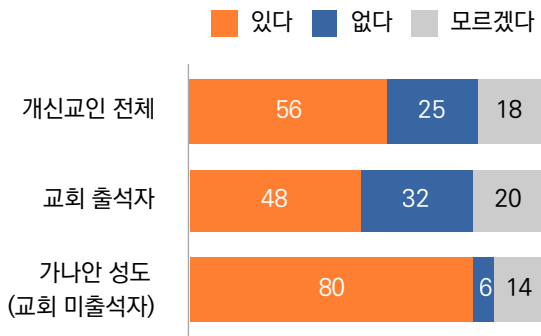
# 01

## [개신교인의 종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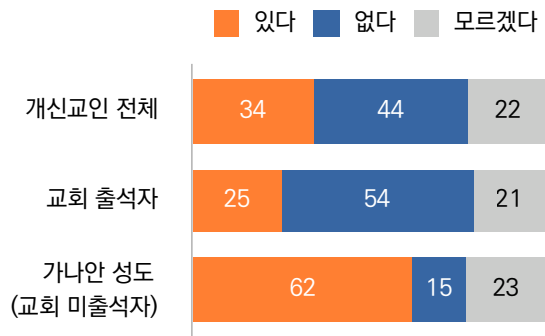
### 교회출석자 4명 중 1명, 다른 종교에도 구원있다고 생각해!

- ▶ 개신교인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과 진리가 있다고 생각할까? 먼저 타 종교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개신교인 56%가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해, 타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인식에 있어 개방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교회 미출석자의 경우 '그렇다' 비율이 무려 80%로 나타났다.
- ▶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34%가 '그렇다(매우+약간)'라고 응답했는데 교회출석자 중에서도 25%가 타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타 종교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는지 여부 (개신교인, %)



[그림] 타 종교에도 구원있는지 여부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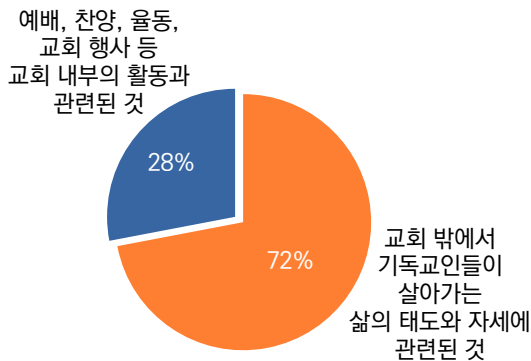


\*있다 : 매우+약간, 없다 : 전혀+별로의 합  
 \*\*합계가 100%가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 기독교 문화란, 교회 내부 활동보다 교회 밖에서의 개신교인 삶과 관련된 것이다!

- ▶ 두 가지 문장을 제시하고 기독교 문화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묻은 결과, '교회 밖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와 관련된 것'이 72%로 '교회 내부의 활동과 관련된 것'(28%)보다 2배 이상 높게 응답되었다. 기독교 문화, 전통적인 교회 규범에 관한 인식이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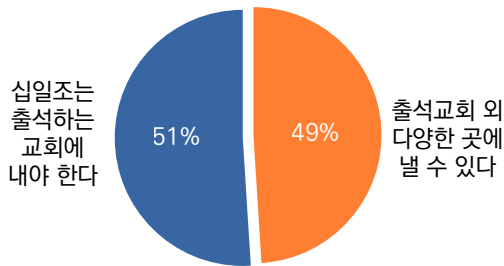
[그림]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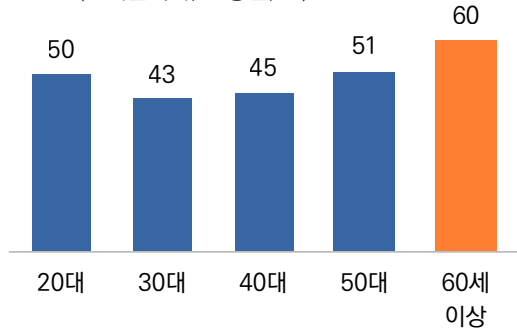
## ◎ 개신교인의 십일조 봉헌처, '출석교회'와 '출석교회 이외' 의견 팽팽히 맞서!

- ▶ 개신교인의 전통적인 교회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물었다. 십일조 봉헌처에 대한 의견(교회출석자)은 '십일조를 출석교회에 내야 한다'(51%)는 의견과 '출석교회 외 다양한 곳에 낼 수 있다'(49%)는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 ▶ 60세 이상에서 '십일조를 출석교회에 해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십일조 봉헌처에 대한 의견 (교회출석자)



[그림] '십일조는 출석교회에 해야 한다' 의견 (교회출석자,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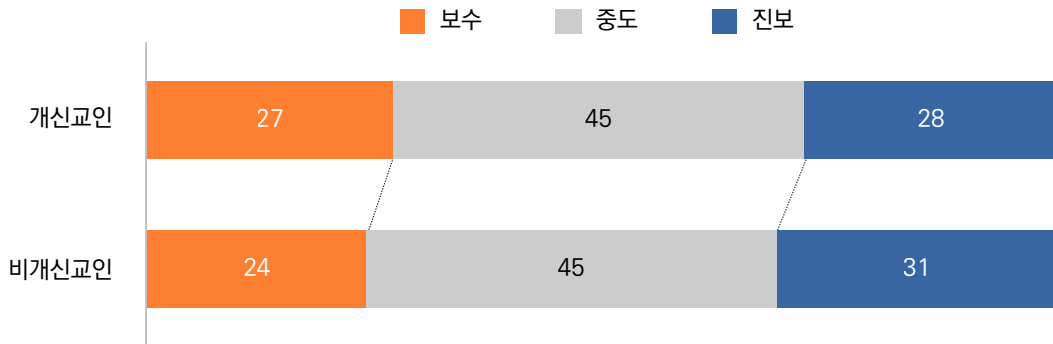
## 02

### [이념·문화적 정치 성향]

## 개신교인, 비개신교인보다 조금 더 보수적!

- ▶ 자신의 주관적 정치 성향에 대해 질문했을 때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각각 '중도'가 45%인 가운데, 개신교인은 '보수(매우+약간)' 27%, '진보(매우+약간)' 28%였고, 비개신교인은 '보수' 24%, '진보' 31%로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보수적인 성향이 약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주관적 정치 성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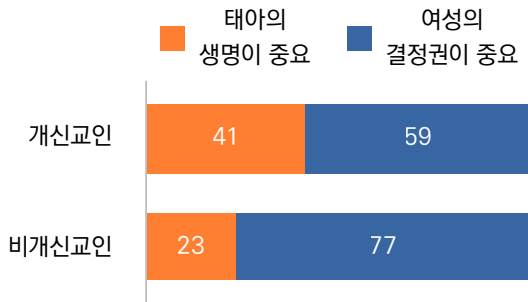


\*5점 척도로 보수, 진보 각각 '매우+약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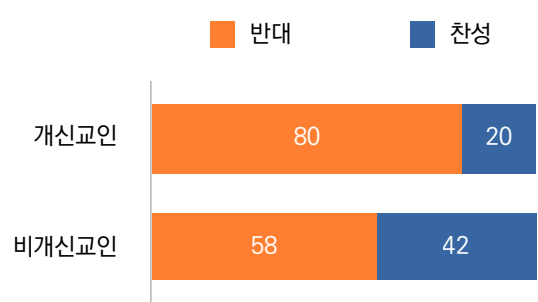
## ◎ 개신교인의 사회문화 인식, 비개신교인보다 더 보수적!

- ▶ 낙태 이슈와 동성 간 결혼제도 이슈를 통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사회문화 인식 차이를 알아봤다.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진보적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결정권이 중요’ 의견이 더 높았는데, 개신교인의 경우 보수적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태아의 생명이 중요’에 대한 의견(41%)이 비개신교인(23%)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 ▶ 동성 결혼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높았는데, 개신교인의 반대 의견(80%)이 비개신교인(58%)보다 22%p 높게 나타나 이 역시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림] 낙태에 대한 의견 (%)



[그림] 동성 간 결혼제도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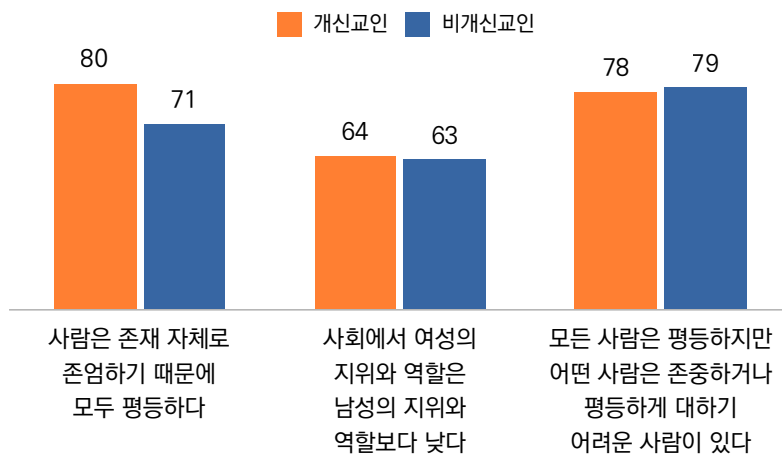
## 03

### [평등·차별 인식]

## 개신교인, 비개신교인보다 인간 존엄과 평등 인식 더 높아

- ▶ 인간에 대한 이해와 평등 인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다.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다’는 질문에 개신교인의 80%, 비개신교인의 71%가 동의해 인간 존재의 존엄과 평등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개신교인에게서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그 외 ‘남녀평등’, ‘차별적 평등’에 관련한 질문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인간 평등 관련 주장에 대한 동의율\* (매우+약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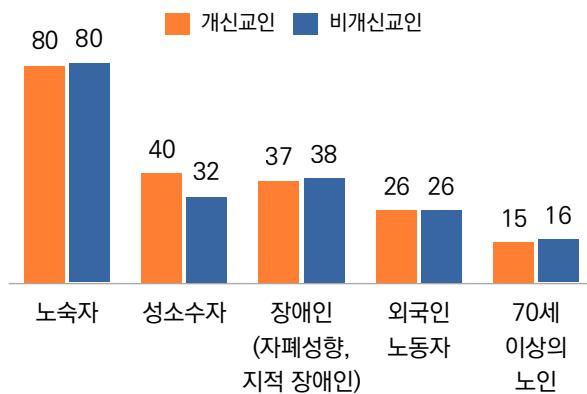


\*5점 척도 질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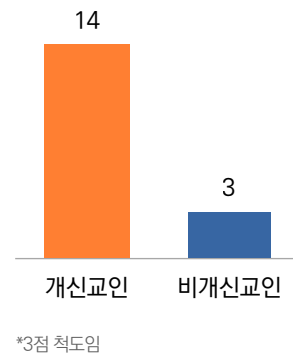
## ◎ 개신교인, '성 소수자'에 대해 비개신교인보다 4배 이상 불편함 느껴

- ▶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은 사회적 소수자/취약계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포용성은 어느 정도일까? '지하철에서 내 옆자리에 000이/가 앉으면 꺼리게 된다'는 질문을 통해 거리낌 정도를 확인한 결과, 개신교인이 '성 소수자'를 꺼리는 비율은 비개신교인보다 8%p 높게 나타났고, 다른 집단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 ▶ 개신교인이 주변의 성 소수자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비율(14%)은 비개신교인(3%)보다 무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림] 지하철에서 내 옆자리에 000이/가 앉으면 꺼리게 된다  
(각 항목별 매우+약간 그렇다 응답자, %)



[그림] 주변의 성소수자에 대해 불편하다는 비율  
(주변에 성소수자 있는 응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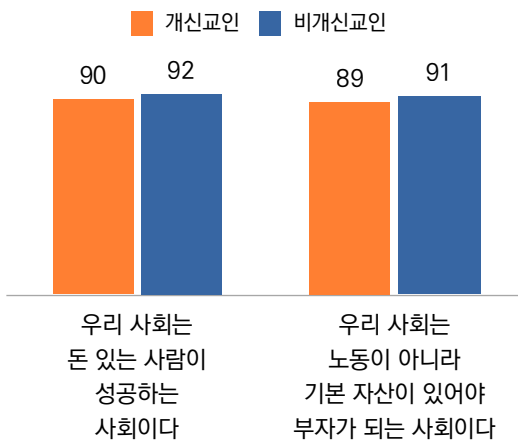
# 04

##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인식]

### 개신교인의 돈에 대한 견해, 비개신교인과 큰 차이 없어

- ▶ 사람들의 돈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다.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이다', '우리 사회는 노동이 아니라 기본 자산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사회이다'에 대한 의견 모두 응답자의 대다수가 그렇다고 동의했으며,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간 큰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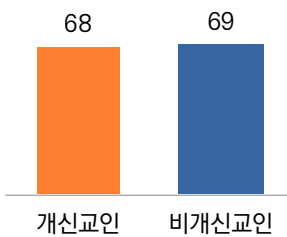
[그림] 돈 관련 주제에 대한 동의율\* (매우+약간 비율, %)



##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신분제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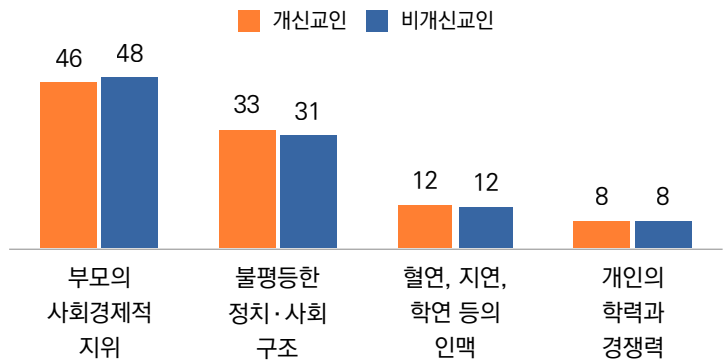
- ▶ 사람들의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3명 중 2명 이상이 동의했고, 이에 대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이 비슷했다.
- ▶ 새로운 신분제를 초래하는 원인으로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개신교인 46%, 비개신교인 48%)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불평등한 정치·사회 구조’,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인맥’의 순이었다. 응답자 절반 가까이서는 개인의 노력이나 학력 등의 스펙보다 부모의 부를 대물림하는 현실을 ‘현대판 신분제’로 생각하고 있었고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림] ‘오늘의 한국사회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이다’에 대한 동의율 (매우+약간 비율, %)



\*5점 척도임

[그림] 새로운 신분제를 초래하는 원인 (한국 사회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라는 의견에 동의한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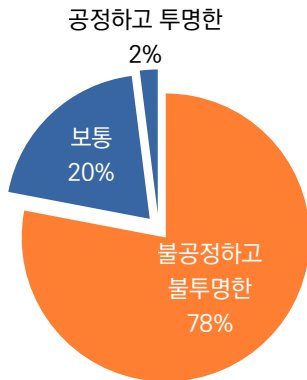


# 05

## [비개신교인의 한국교회 인식] 한국교회, 다른 종교에 비해 배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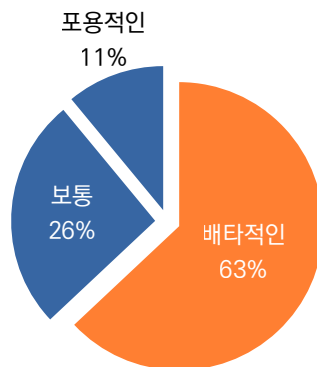
- ▶ 비개신교인에게 다른 종교 대비 한국교회의 사회적 이미지를 묻은 결과,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78%)는 의견이 ‘공정하고 투명하다’(2%) 의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 다른 종교 대비 한국교회의 포용성도 ‘배타적이다’(63%)라는 의견이 ‘포용적이다’(11%)는 의견보다 크게 높았다.

[그림] 다른 종교 대비 한국교회의 사회적 이미지 (비개신교인)



\*5점 척도로 매우+약간 비율

[그림] 다른 종교 대비 한국교회의 포용성 (비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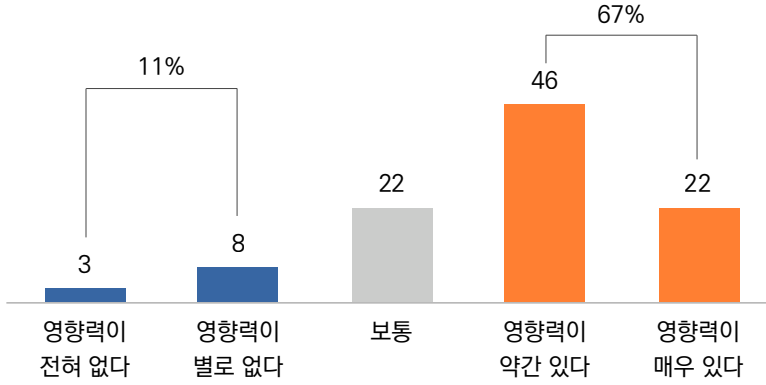




## ◎ 비개신교인 67%, 한국교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다!

- ▶ 한국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비개신교인 3명 중 2명꼴로 '영향력 있다'(67%)고 응답해 긍정적, 부정적 인식과 상관없이 비개신교인들은 한국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다른 종교 대비 한국교회의 사회적 영향력 (비개신교인, %)



근대 역사는 절대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이며, 사회적·신분적 차별과 불평등으로부터 평등한 인권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 근대사에서 나타난 평등사상은 '천부인권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천부인권론'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상이다. '천부인권론'은 계몽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바탕에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표준 새번역)라고 하면서 인간의 창조와 가치에 대한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표준 새번역)라고 했다. 이 말씀들은 인종, 사회적 지위, 성별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상은 청교도가 중심이 된 미국독립선언(1776년)에 잘 구현되었다. 미국독립선언서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라고 하면서 평등권을 강하게 천명했다. 1950~1960년대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흑인 인권운동도 기독교 바탕의 평등 운동이었다. 이는 인종 차별 철폐 운동이었으나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별, 경제적 지위, 국적 등의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운동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의 평등 실천은 활발했다. 조선 시대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평등과 인권을 강조하며, 성씨나 출신 지역,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해 차별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다. 일례로 서울의 연동교회는 1904년 최초의 장로로 고찬익을 세웠다. 고찬익은 천민으로 취급받던 갓바치 출신으로서, 연동교회는 당시 사회적 신분 차별이 존재하던 시절 당회를 조직할 때, 구한말 고위 관료를 지낸 양반 출신 장로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민 출신을 장로

로 선출하면서 평등 실천에 앞장섰다. 조선의 신분제는 1894년 갑오개혁에서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던 인습을 교회가 앞서서 개혁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1970년대 이후에도 여러 부문에서 진행된 인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평등사상을 실천하였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평등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일까? 이번 넘버즈 분석에서 보면 기독교인이 총론에서는 비기독교인보다 평등 감수성이 뛰어나지만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다'에 기독교인은 80%가 동의했는데 비기독교인은 71%가 동의하였다.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만인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상대적으로 더 확고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남성의 지위와 역할보다 낮다'에 기독교인 64%, 비기독교인 63%가 동의해서 양자 간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어떤 사람은 존중하거나 평등하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에도 기독교인의 78%, 비기독교인 79%이 동의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혐오 대상자라고 불리는 노숙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해서도 이웃으로서의 수용도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한국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데에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각각 60%, 63%가 동의해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기독교인보다 평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더 뛰어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번 넘버즈 분석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적 삶이 되어야 한다.

1.[한국인의 세대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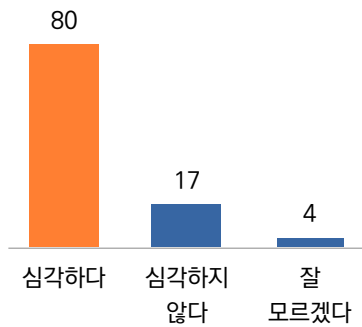
2.[2022년 학교 폭력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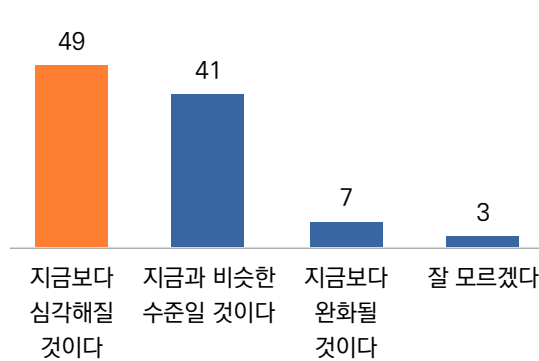
## 우리 국민 대부분, 한국사회 세대 갈등 '심각하다'!

- ▶ 만 19세 이상 우리 국민의 대부분(80%)은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매우+약간)고 느끼고 있으며, 향후 세대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절반이나 응답됐다. 반면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7%에 그쳤다.

[그림] 세대 갈등에 대한 인식\*\* (%)



[그림] 향후 세대 갈등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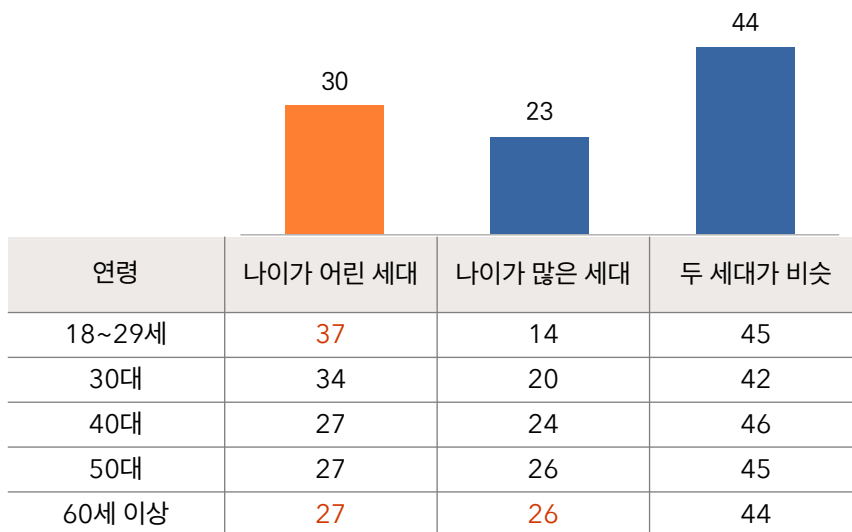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3 세대인식조사] 세대갈등 및 다른 세대에 대한 인식, 2023.03.14.(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2.10.~02.13)

\*\*4점 척도 질문임 (매우+약간, 별로+전혀)

### ◎ 세대 갈등, 나이가 적건 많건 모두 비슷하게 피해 본다 44%!

- ▶ 세대 갈등으로 어느 세대가 더 피해를 볼 것 같은지를 물은 결과, '나이가 어린 세대' 30%, '나이가 많은 세대' 23%, '두 세대가 비슷' 44%로 응답해 세대 갈등은 모든 세대에 비슷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했다.
- ▶ 다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나이 어린 세대가 피해를 본다는 응답이, 높을수록 나이 많은 세대가 피해본다는 인식이 높았다.

[그림] 세대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세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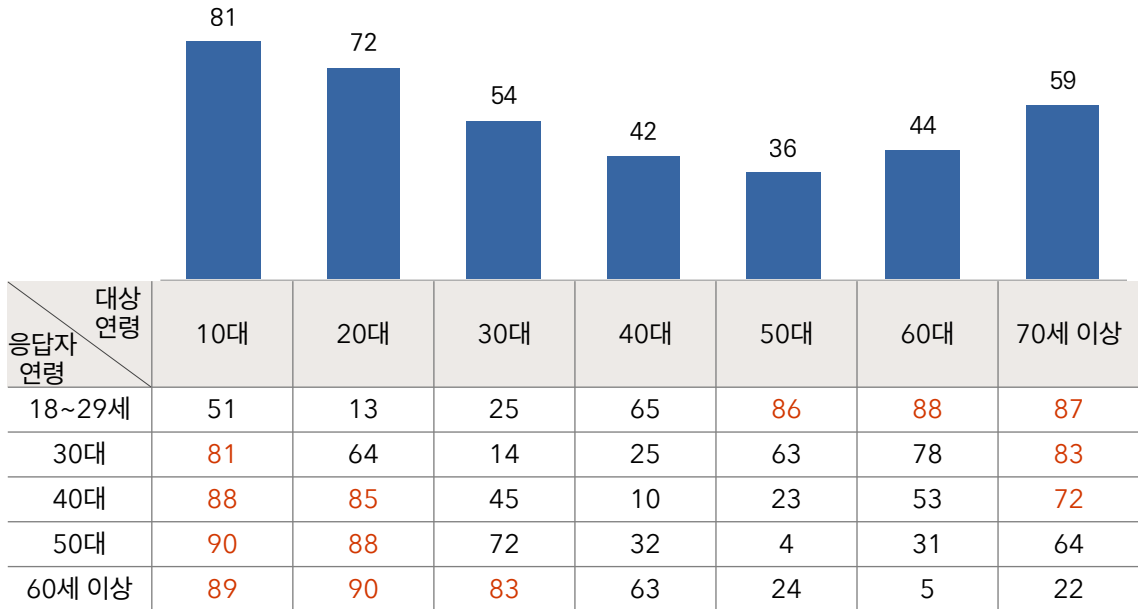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3 세대인식조사] 세대갈등 및 다른 세대에 대한 인식, 2023.03.14.(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2.10.~02.13)

\*\*모르겠다/무응답은 기재하지 않음

## ◎ 20대 청년과 60대 이상 노인 간 세대 차이 인식, 서로 80% 이상 크게 느껴!

- ▶ 각 연령대의 사람들에게서 세대 차이를 느끼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10~20대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10대' 81%, '20대' 72%), 그 외에 '70세 이상' 59%, '30대' 54%, '60대' 44% 순이었다.
- ▶ 20대 청년이 60대 이상 고령층한테 느끼는 세대 차이 인식은 80% 이상 높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20대 청년한테 느끼는 세대 차이 인식은 90%로, 20대가 느끼는 것보다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표] 각 연령대에 대한 세대 차이 인식(각 연령대에게 매우 많이+약간 느끼는 편이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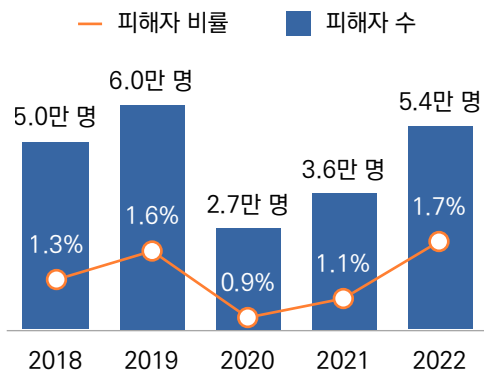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3 세대인식조사] 세대갈등 및 다른 세대에 대한 인식, 2023.03.14.(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2.10.~0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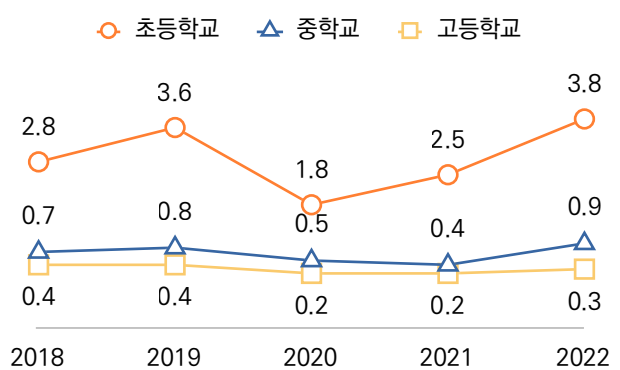
## 학교 폭력 피해자 수, 2022년 5만 4천 명으로 코로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

- ▶ 넷플릭스에서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반영되면서 우리나라 사이에 학교 폭력 문제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4~고3 학생 가운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수는 2022년 5만 4천 명이며, 비율로는 전체 응답 학생의 1.7% 수준이었다. 학교 폭력 피해자 비율이 2020년 0.9%로 줄었다가 2022년 1.7%로 반등, 다시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중학교의 4배 이상, 고등학교와는 무려 1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그림]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 및 피해자 수



[그림] 학교급별 피해자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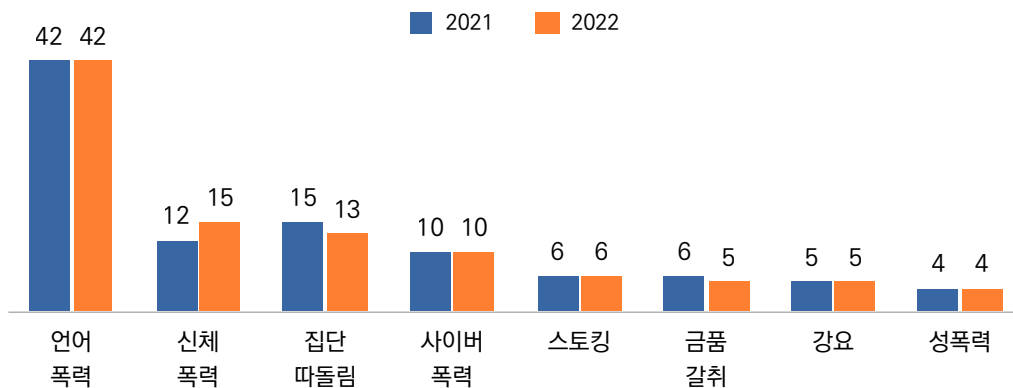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교육부,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9.06. (초4~고3 재학생 전체 약 321만 명,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 2022.04.11.~05.08)

### ◎ 학교 폭력 중, 신체적 폭력 증가 추세

- ▶ 실제 학교 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 폭력' 응답 비율이 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 폭력' 15%, '집단 따돌림' 13% 등의 순이었다.
- ▶ 2021년 조사 대비 '집단 따돌림'(2021년 15%→ 2022년 13%)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신체 폭력'(2021년 12%→ 2022년 15%)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학교 폭력 피해 유형별 비율 (%)



\*자료 출처 : 교육부,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9.06. (초4~고3 재학생 전체 약 321만 명,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 2022.04.11.~05.08)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34호 \(2023년 3월 3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경제 전망, 현행 법정근로시간 적정성 평가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92호 \(2023년 3월 3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긍/부정 평가 이유, 정부의 강제동원(징용) 피해 배상안 찬반 등

◎ 사회 일반

[“챗GPT 써봤다”...X세대가 제일 적극적, MZ 세대 바짝 뒤따라](#)

한겨레\_2023.03.20.

[만혼이 대세...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 신부보다 많아](#)

연합뉴스\_2023.03.20.

[빚 없이 자산 32억...이 정도는 돼야 대한민국 '상위 1% 부자'](#)

한국경제\_2023.03.16.

["교실에서 마스크 벗기 창피해...옆자리서도 카톡으로 소통"](#)

연합뉴스\_2023.03.18.

["공부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입주민 멸시에 경비원들 '한숨'](#)

한국경제\_2023.03.16.

[흥부외과 전공의, 주102시간 근무... 42%는 "이들에 한번꼴 24시간 밤샘"](#)

조선일보\_2023.03.15.

["서울 시민, 뉴요커와 생각 비슷...도쿄·베이징보다 물질 중시"](#)

KBS NEWS\_2023.03.18.

◎ 경제 / 기업

['12만5000명' 청년취업 감소... 2년 만에 최악](#)

서울신문\_2023.03.15.

[월화수목'일일일'...영국 주 4일제 파격 실험의 감춰진 진실](#)

중앙일보\_2023.03.16.

[쪽 일하고 쪽 쉰다? 10명 중 3명 "지금도 연차 맘대로 못써"](#)

중앙일보\_2023.03.13.

[여성기업 295만 시대... 1인당 매출 늘고 수익성도 개선](#)

조선일보\_2023.03.15.

["한국 직장인, 독일 직장인보다 1년에 566시간 더 일한다"](#)

JTBC\_2023.03.15.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건강**

[전 세계 2만명에게 물었다… "하루 몇 시간 자세요?"](#)

헬스조선\_2023.03.16.

---

◎ **기독교 / 종교**

["겉과 속 다른 워선자 때문에 기독교 신앙 의심한다"](#)

더미션(국민일보)\_2023.03.16.

---

[美 개신교 신자들, 목회자들보다 '교인 기준' 엄격](#)

크리스천투데이\_2023.02.27.

---

[개신교 교회 소그룹 출석률 감소](#)

크리스찬타임스\_2023.03.17.

---

["농어촌 목회자 3명 중 2명 사례비 200만원도 못 받는다"](#)

더미션(국민일보)\_2023.03.21.

---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정음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대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시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दन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 후원 개인 |

가우진, 감덕규, 강영원, 강정남, 강종희,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권순홍, 김고은, 김관상, 김기혁, 김동찬, 김동하, 김대하, 김명준,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식, 김성은, 김성현, 김숙정, 김시은,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기,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인수, 김종천, 김재욱, 김주형, 김지한, 김 찬, 김태철,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나윤만, 남기환, 남도현, 남성태, 노기환, 노현민,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상훈, 박세용, 박승수, 박영철, 박영호, 박재덕,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지혜,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변형석,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경복, 서기원, 서연우, 서영진, 서우정, 서은영,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은뜸, 신명자, 신승민,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심명현, 안요한,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양승일, 엄정석, 여삼열, 오강일,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영민, 유진웅, 유형창, 윤도형, 윤동하, 윤상현, 윤성덕, 윤여민, 윤영조, 윤정규, 윤치호, 윤홍경, 이경만, 이경선, 이국희, 이기원, 이광호, 이대식,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성, 이상호, 이석윤, 이석준, 이선진, 이성근, 이성득,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재열, 이재혁,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형근,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임정순, 원하나, 장명철,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준영, 장진수, 장재영, 장형철, 전근영, 전병철, 전용립, 전치영, 정기묵, 정부활, 정영자,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진혁, 정재웅,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도환, 지연희,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인화,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명호,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원경,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최호근, 한동준, 한병록, 한영숙,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술, 한미경

##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감리회 농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우리 연구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함께 감리회 농어촌교회 담임목회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교회 및 목회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감리회 농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조사 결과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 시 : 2023년 3월 30일(목) 오후 2시

장 소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교회

문 의 : 사회농어촌환경부 02-399-4340